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론:

독서 토론에서 감정의 역할

고현범*

【요약】

이 글은 가치 토론에서 토론자의 공감 여부가 토론을 구성하는 한 요인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가란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가치 토론에서 연민을 비롯한 감정의 요소가 작용하는 의사소통 충위를 옹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학적 상상력을 공적 합리성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검토했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소설이 갖고 있는 형식적 특성과 정서적 내용은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독자들의 가치관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누스바움은 문학 작품이 갖는 윤리적 정치적 함축을 드러내는 독서 토론 방식으로 웨인 부스의 “공동 추론”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신중한 시민과 훌륭한 재판관이 공적인 판단을 할 때 감정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감정은 이성적 추론과 무관한 맹목적인 힘이라는 견해가 놓여 있다. 누스바움은 감정의 인지적 요소를 들어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다. 즉 감정은 지향적이며 그 충분조건으로 믿음과 판단이라는 합리적인 요소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인지적 요소를 바탕으로 연민 감정이 갖는 적절함의 차원을 검토했다. 누스바움의 인지주의는 감정이 갖는 신체적 특성을 간과하는 반면에 감정의 정신적 “격변”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 감정 특히 연민이 공적인 판단과 맺는 연관을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독서 토론 교육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감정, 연민, 독서 토론, 누스바움, 인지주의

*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들어가는 말

현재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 독서교육은 글쓰기의 보조수단으로 단순한 책읽기를 넘어서 대학 인문교양교육의 핵심과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비롯해서 텍스트를 읽고, 말하고, 쓰는 통합 모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이 마땅히 전달하고 전수해야 할 지식의 원천으로서 고전읽기에 대한 중요성이 대체로 동의를 얻었고, 이러한 고전들을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읽히는 —도서인증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었다. 한편 현실에서 접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모형으로서 독서교육의 모형이 모색되고 있다.¹⁾

이 글은 필자가 대학에서 <독서세미나> 과목을 진행하면서 생긴 물음, 즉 가치 토론²⁾에서 토론자의 공감 여부가 토론을 구성하는 한 요인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란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이 물음은 <독서세미나> 과목에서 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³⁾을 두고 진행한 독서 토론 과정에서 생겼다. 문제 상황에

1) 김양선,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 - 텍스트 읽기, 말하기, 쓰기 통합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3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28~30. 대학 독서 토론강의가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김현주,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229~249 참조.

2) 이 글에서 가치 토론이란, 토론에서 다루지는 주제를 크게 “가치 주제(proposition of value)”와 “정책 주제(proposition of policy)”로 나누어볼 때, 가치 주제를 다루는 토론을 의미한다. 존 M. 에릭슨 제임스 J. 머피·레이먼드 버드 조이쉬너, 서중기 옮김, 『디베이트 가이드』 (길벗, 2013) 27.

3)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픈하우스, 2011)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독서세미나> 과목의 진행 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의는 한 도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① 교수자는 지은이와 배경 상황 등 해당 도서에 대한 소개 강의를 한다. 수강생들은 해당 도서의 ② 내용을 요약하고, ③ 관련된 주제를 두고 조별 토론을 진행한다 (독서세미나결과보고서 작성). 수강생들은 조별 토론을 바탕으로 관련 주제에 관한 ④ 독서에세이를 작성한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경우 ③은 사형제 찬반 토론으로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조별 토론 시간에 조원들과 나누고, 찬반 입장에 따라 전체 토론에 참여했다. 사형제 찬반 토론은 사회윤리 과목에서도 진행되는 주제이지만, <독서세미나> 과목에서 이 토론이 갖는 의미는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에 동의하는가 여부와 관련된다. 즉 이 토론을 통해 수강생들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연습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자의 메시지에 동의 또는 거부하는 이유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해당 도서와 주제가 제시하는 과제이다.

그런데 토론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해당 텍스트와는 무관하게(독립적으로?) 찬반 토론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학생들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수강생들이 이러한 토론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텍스트를 근거로 토론을 진행하려면 해당 소설이 제시하는 서사가 현실과 맞는 관계를 고찰하는 또 하나의 (수강생들로서는) 번거로운 사고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편리한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수강생들의 감상문에서 찾을 수 있었던 주목할 만한 이유 한 가지는 해당 텍스트가 사형수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 태도는 작가가 설정한 서사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 해당 주제에서 원래 설정한 —저자의 주장에 비판적으

로 접근하기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해당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는 작품의 완결성이나 몰입도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한 층위에 자리한 하나의 관념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즉 사형제 찬반과 같은 심각하고도 진지한 가치 토론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소설 속 주인공들이 만들어내는 허구 속 현실과는 무관하다는 관념 말이다. 비극적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밤새 눈물 흘리더라도 이러한 눈물은 토론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바람직한 토론 태도일 것이다. 눈물이 논변을 대신할 수는 없고, 만약 대신한다면,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같은 소설은 가치 토론을 위한 텍스트로는 부적합한가? 이러한 의문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품었던 일차적인 물음이었다.

이러한 물음은 해당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취하고 있는 서술 구조, 즉 사형수 윤수의 일인칭 관점의 ‘블루노트’를 은정의 일인칭 관점의 서술과 번갈아 배치한 구조로 이어진다. 즉 작가는 윤수의 말에 귀 기울여 볼 것을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이는 소설이 지닌 연민이라는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치 토론에서 연민의 요소는 배제되어야 하는가?

이 글의 목적은 가치 토론에서 연민을 비롯한 감정의 요소가 작용하는 층위를 옹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누스바움(M. Nussbaum)의 연민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문학적 상상력은 공적 합리성의 한 부분”⁴⁾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우선 소설이 가치 토론을 위한 텍스트로 적합한가 여부를 검토하고, 연민이 공적 사안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데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누스바움의 연민론에는 연민을 포함하는 감정 일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바탕에 놓여 있다. 이에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누스바움의 인지주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4) 마사 누스바움,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궁리, 2013) 16.

II. 소설은 가치 토론을 위한 텍스트로 부적합한가?

1. 왜 소설인가?

누스바움은 시카고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한 <법과 문학>이란 강의에서 성, 동성애, 인종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논의하면서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선 <법과 문학>이란 과목명이 특정하는 강의 범위를 논외로 한다면, 독서 교육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데 관련 사회과학 논문이 아니라 왜 소설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 누스바움은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문학과 예술은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란 명제로부터 출발한다.⁵⁾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의미하는데 반해 문학과 예술은 인간 삶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보여준다. 누스바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녀가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포함한 공적 토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⁶⁾이며 소설이 갖고 있는 서사 형식이 그러한 능력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즉 소설은 독자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소설이 갖는 서사 형식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 주인공들과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한다.

누스바움이 소설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훌륭한 문학 작품은 독자들에게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야기하며, 당혹스럽게”⁷⁾함으로써 독자들이 확신하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데 있다. 우리가

5) 같은 책, 32.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13) 9장.

6) 누스바움, 같은 곳.

7) 같은 책, 33.

상대방과 나누는 의사소통은 소통 매체인 언어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감정의 층위인데, 한 사건이나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 만족감/불만족감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표현한다. 이 층위에서 의사소통의 관건은 사안에 대한 공감 여부에 달려 있다. 두 번째 차원은 가치관이나 사고의 방향성과 관련된다. 이 차원에서는 설득에 의한 논리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세 번째 차원은 추상적인 것에 대한 개인의 관념을 지배하는 어떤 통념이나 전통적인 관념의 층위이다. 이러한 층위는 문화, 인습,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의사소통에서 누스바움은 첫 번째 층위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의 차원은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형성한다. 한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층위가 바로 감정이며, 그만큼 감정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이 들고 있는 두 가지 특성, 즉 서사의 형식적 특성과 강렬한 정서적 내용은 다른 예술 작품 또한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소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령 음악이 갖는 비재현적 특성이 공적인 사안을 고찰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며, 영화는 소설보다 견더운 시간의 힘이 부족하며, 그리고 소설과 가까운 거리에 놓인 고대 비극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비극 작품은 그녀가 주로 다루는 사실주의 소설에 비해 당대적인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소설 속 주인공들과 희망이나 두려움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그러한 이유로 그들과 동일시하고 공감하면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⁸⁾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에서 소설의 위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으로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소설이 특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마음의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허구를 만들어내는 상상력, 즉 공상(fancy)”이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

8) 같은 책, 36.

중에서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과 결여하고 있는 인물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2. 공상과 문학적 상상력

누스바움이 강조하는 공상이란 “하나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 안에서 하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소설적 용어”이다. 이러한 공상의 능력이란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유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란 점에서 “은유적 상상력(metaphorical imagination)”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설이 자극하는 공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perception)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어린 시절에 배우는 놀이나 이야기, 동요 부르기를 통해 길러진다. 가령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와 같은 동요를 부름으로써 아이는 별이 단지 망막을 때리는 시각 자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의 이야기, 즉 별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상상하게 된다. “달에 존재하는 인간, 망가진 뿔을 가진 소, 작은 별 등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아이의 인식은 단순한 물리적 사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가 복잡한 내적 구조—신비하고, 또 한편으로 아이 자신의 삶과도 같은—를 가진다고 상상한다.”¹⁰⁾

이러한 공상은 아이들에게 유희적인 성격을 갖는다.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밀어붙임은 다른 말로 하면 유용성없는 공상에 빠지지 말라는 주문과도 같다.¹¹⁾ 하지만 공상적인 이야기와 동요에서

9) 같은 책, 90.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은유란 유(類)에서 종으로, 혹은 종에서 유로, 혹은 종에서 종으로, 혹은 유추에 의하여 어떤 사물에다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용(轉用)하는 것이다.” 『시학』 1457b7-10.

10) 누스바움, 같은 책, 93.

기쁨을 느끼는 아이는 세상과 삶에서 ‘쓸모’와는 다른 차원이 존재함을 깨닫고 그림으로써 어떤 것을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공상 혹은 문학적 상상력은 이처럼 자신과는 다른 대상의 내면을 상상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일종의 너그러운 태도를 갖게 한다.

또한 궁금하고 그래서 신비로운 사물에 자신과 같은 생명과 느낌 그리고 생각들을 투영하면서 아이들은 좀 더 복잡한 대상, 즉 동물과 인간으로 상상력을 확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 속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우며, 거기에는 넘기 어려운 “방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일종의 “타자의 경험”이 누스바움에 따르면 도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험이다. “스토리 텔링이 촉진하는 경이(wonder)의 습성은 타자를 광활하고 깊이를 가진, 서로 구별되는 질적인 차이를 가진, 존중할만한 감추어진 공간을 갖춘 존재로 인정한다.”¹²⁾

누스바움에 따르면, 무엇보다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와 ‘그들’과 같은 일정한 구획(distinction)을 짓게 한다는 점에 있다.¹³⁾ 공상 그리고 그것이 확장된 능력인 문학적 상상력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연민은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데 이로부터 생겨나는 ‘우리’와 ‘그들’의 구획과 그러한 차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작품들마다 다른 방향을 갖고 있다. 어떤 작품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주변적인 사람들에 대해 그들도 우리처럼 느끼고 행동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림으로써 포용과 인정의 태도를 갖게 하는 반면에 어떤

11) 같은 책, 101.

12) Martha C. Nussbaum, “Invisibility and recognition: Sophocles’ *Philoctetes* and Ellison’s *Invisible Man*”, *Philosophy and Literature* 23,2 (University of Michigan, 1999) 273.

13) Martha C. Nussbaum, 같은 곳.

작품들은 정형화된 타입의 인물형이나 기존 가치관을 견고히 함으로써 기존 가치관이 주변화시킨 인물들을 조롱하거나 혐오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부추기기도 한다. 요컨대 문학 작품들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초연한 태도를 취하게 내두지 않는다. 문학 작품들에 대한 누스바움의 이러한 입장, 즉 문학 작품들을 도덕적·정치적인 관점에서 수용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은 독자들이 자신의 예술 경험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3. 공동-추론(co-duction)의 윤리적·정치적 의의

누스바움은 문학 작품이 독자들을 윤리적·정치적 맥락으로 초대하는 전통을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찾는다. 즉 아테네 시민들은 비극 공연을 보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공적 가치들에 관한 논변을 숙고했으며, 이런 전통은 현대 문학계에서 훌륭하게 재현된다. 누스바움은 고대 그리스 비극이 시민적 가치와 맺는 연관과 그 현대적 의의를 논의하기 위해 웨인 부스(Wayne Booth)의 “공동 추론” 개념을 도입한다.¹⁴⁾

웨인 부스는 문학 작품과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친구와의 대화에 비유한다. 친구와 대화하면서 우리는 그 친구가 대화하길 바라는 주제, 즉 세상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 또는 그가 평가하는 주변 인물들에 관해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사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거나 아니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에 관해 비난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떤 친구들처럼, 어떤 작품들은 나로 하여금 값싼 여흥을 줄 수도 있고, 인간을 비하하는 태도를 부추길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작품들은 인간의 깊이에 관해 느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경이감 그리고 나아가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웨인 부스의 이러한 비유가 갖는 비공식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같은 책, 274~275.

우리는 친구들과 굳이 어떤 격식을 차려서 만나지 않는다. 이처럼 소설과 같은 작품들은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건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와 교류의 비유가 갖는 핵심은 바로 몰입과 비판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웨인 부스에 따르면, 상대방의 지각이 나의 것을 보충하거나 충돌하는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경험이나 몰입이 그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비판적 태도에 선행하며 또 그러한 태도를 근거 짓는다. 웨인 부스가 그러한 상호작용을 “공동 추론(함께 이끌어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갖는 “공동적이며 비교적인(communal and comparative)” 성격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해마다 열린 고대 그리스 비극 축제의 경험이 현대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형된 형태의 교류와 경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강의실이다. 대학 강의실에서 우리는 예술 작품이 갖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함축에 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누스바움에 따르면 이를 위한 진전된 모델을 공동 추론 개념이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서를 하나의 공동 추론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독서가 갖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 즉 자신만의 몰입을 통한 경험을 다른 독자들의 반응과 논쟁을 통해서 공유하거나 비교해봄으로써 비판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공동 추론 개념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구별인, 극중 화자 혹은 등장인물 그리고 “암묵적 화자(implied author)”¹⁵⁾라는 구별이 시사적이다. 암묵적 화자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목소리다. 어떤 작품은 그 작품 속 등장인물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인물들이 거의 없는데도 전체적으로 울림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서를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개별 인물들이 거부감을 주더라도 쉽게 책에서 손을 놓거나 작품을 평가하지 말고 작품의

15) 같은 책, 274.

전체 메시지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그리스 비극 『필록테테스』에서 간교한 오디세우스와 네오프톨레모스의 선원들로 구성된 코러스를 구별하고, 『보이지 않는 인간』에서 시종일관 순종적인 주인공,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의 저자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것은 미학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정치적으로도 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록테테스』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인물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지 않고서 이 비극이나 소설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⁶⁾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와 엘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이 보여주듯이 연민은 작품을 이해하고 적절한 윤리적 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민 또한 하나의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공적 사안을 두고 벌어지는 토론에서 적절한 근거일 수 있는가란 처음의 물음은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Ⅲ. 감정은 비합리적인가? - 연민(compassion)¹⁷⁾의 인지적 요소들

공적인 판단을 할 때, 이를 태면 신중한 시민과 훌륭한 재판관은 자신의 사고에서 감정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감정은

16) 같은 책, 275. “요컨대, 그런 작품들에 관한 훌륭한 미학적 평가는 윤리적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는 듯하다.” 소포클레스, 천병희 옮김, 『필록테테스』,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숲, 2008) 419~479, 랠프 엘리슨, 조영환 옮김, 『보이지 않는 인간』(민음사 2008).

17)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누스바움은 연민(compassion)을 “다른 사람의 부당한 불행의 지각에 의해 생기는 고통스런 감정”의 뜻으로 사용하며, 여러 아시아 문화 전통에 핵심적인 감정이자 집단 선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으로 이해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pity”, “sympathy”, “empathy”를 들 수 있는데,

이성적 추론과 무관한 맹목적인 힘이라는 견해가 놓여 있다. 반면에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 입장에 따르면 감정은 반성이나 판단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포함한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누스바움은 감정의 특징을 네 가지로 들고 있다.¹⁸⁾

첫째, 감정은 어떤 것에 관한 감정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대상을 갖는다. 누스바움은 학회 발표회장에서 위독한 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듣고 대서양을 건너 병원으로 향하던 기억을 소개한다. “나의 두려움, 희망, 궁극의 슬픔, 모든 것들은 나의 어머니에 관한 것이고 그녀와 그녀의 삶을 향한다.”¹⁹⁾ 만약 감정의 대상이 없다면 그 감정은 단지 떨림이나 심장 박동일 뿐이다. 그것은 파도가 바위를 세차게 두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이때 감정이 갖는 대상은 지향적 대상이다. 즉 감정 주체가 지각하는 그 대상은 주체에 의해 해석된 대상이다. “나의 두려움은 나의 어머니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리고 위협받는다고 지각한다. 나의 슬픔은 그녀를 가치있는 존재로,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나와 단절된 존재로 여긴다.”²⁰⁾ 여기에서 나의 두려움은 위협받는 대상과 그리고 나의 슬픔은 상실된 대상과 관련된다. 이처럼 주체의 능동적 해석과 대상의 연관성은 하나의 감정을 다른 감정과

“pity”가 그리스 비극 용어에서 *eleos*, *oiktos*의 번역어로 사용되거나 루소가 사용할 때에는 *compassion*과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현대에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우월감의 뉘앙스를 갖게 되었으며, 우리말로 “동정”이라고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empathy*”를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가치평가없이, 그 경험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사용되는” 용어로 이해한다. 즉 우리말로 “감정이입”이나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ympathy*”는 연민에 가장 가까운 용어지만 그 강도에서 연민보다 약한 감정이며, 우리말로 “동감”이라고 옮길 수 있다. Martha C. Nussbaum, *Upheavals of Thought :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2001) 301.

18) Martha C. Nussbaum, “Emotions as Judgement and Importance”, ed. by Robert C. Solomon, *Thinking about Feelings :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2004) 187~189.

19) 같은 책, 187.

20) 같은 책, 188.

구별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즉 두려움, 슬픔, 사랑과 증오는 그 대상이 지각되는 방식에 따라 구별된다.

셋째, 이런 감정들은 대상에 관한 믿음을 체현한다. 어떤 의미에선 하나의 사건 x 를 y 로 지각한다는 것 혹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그 사건을 y 로 믿는다는 것과 같다. 즉 어머니의 위독하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란 그 소식이 불길한 사건이 임박하다고 믿게 한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란 불길한 사건이 임박하다는 믿음이다. 게다가 그 사건은 나와 무관하지 않고 심각하게 나쁘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을 피할 수 없지만 무엇이 일어날지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믿어야 한다.

한편 분노의 감정은 좀 더 복잡한 믿음의 집합이다. 즉 분노의 감정은 나 또는 나와 가까운 것이나 사람에게 어떤 손상이 있으며, 그 손상은 심각한 만큼 중요하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손상은 분노의 대상인 어떤 이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어야 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의 집합은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즉 어떤 손상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도적으로 가해지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문제의 분노는 생기지 않는다. 가령 위독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가는 길에 누스바움은 공항에서 행복한 듯 웃고 있는 승객들을 향해 화가 났지만 그들이 그녀를 해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생각에 의해 화는 빠르게 해소된다.

넷째, 감정을 특징짓는 지향적 지각들과 믿음들은 어떤 가치와 관련된다. 즉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가치 부여된 것으로 본다. 만약 누스바움이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녀가 어머니를 집 근처 나뭇가지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혹은 그녀의 회복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목적은 가치가 부여된 대상을 회복불가능하게 상실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감정이 갖는 위와 같은 인지적 요소는 형법에서 인정되었고, 지배적인 전통이기도 했다. 가령 “정당한 분노”라는 개념은 합리적인 사람이 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물으면서 피고의 분노가 갖는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된다. 정당한 분노에 의해 폭행을 저질렀을 때 범죄 선고를 받지만 죄의 무게가 경감된다는 것이다.²¹⁾

이런 관점에서 문학작품이 불러일으키는 연민이 갖는 인지적 요소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연민의 첫 번째 인지적 요소는 괴로워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고 심각하다는 믿음 혹은 평가이다. 둘째 그 사람은 그런 고통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셋째 그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의 가능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가능성들과 유사하다는 믿음이다. 누스바움은 연민의 세 가지 인지적 요소를 각각 “크기의 판단”, “그럴만하지 않다는 판단”, “유사한 가능성들의 판단”이라고 부른다.²²⁾

연민의 첫 번째 인지적 요소인 고통의 심각성은 고통을 야기한 대상이 갖는 가치와 연관된다. 다시 말하면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그 상황이 고통의 당사자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령 일반적으로 우리는 칫솔이나 클립과 같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처한 상실이나 곤궁의 “크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민을 갖기에 충분한 크기란 얼마인가?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와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변하는 것처럼

21) 누스바움(2013) 141. 법과 문학의 연관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입장에서의 비판과 이에 대한 누스바움의 반박, 그리고 재판에서 감정의 역할과 관련해서 윤철홍,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에 대한 수용적 검토」, 『법철학연구』 제17권 2호 (한국법철학회, 2014) 125 이하.

22) Martha C. Nussbaum(2001), 307~326.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1385b13ff.)에서 논의하는 연민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인지적 요소를 검토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연민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난을 향한 고통스런 감정이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세 번째 요소에 관해서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를 달리한다.

보이지 않는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거론하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곤궁의 목록과 현대인들의 그것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²³⁾ 즉 “죽음, 신체적 폭력, 학대, 늙음, 질병, 기아, … 친구를 잃거나, 남아있는 친구의 수가 매우 적어지는 상황, 추함, 육체적인 허약함, 불구 … 악덕의 빈번한 반복”²⁴⁾

또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의 관점에서 곤궁의 크기를 평가하는가란 문제와 관련해서, 고통이나 곤궁에 처한 당사자의 판단은 연민에 결정적이지 않다. 세네카는 파티 준비에 난항을 겪는 친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즉 세네카는 성대한 파티가 삶의 번영에 큰 비중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연민의 감정에는 연민을 느끼는 목격자의 적절한 판단이 중요한 요소다. 물론 목격자의 판단에는 윤리적 풍토가 배경으로 작용한다. 가령 영양실조에 걸린 교육받지 않은 제3세계 여성에게 스토아로서 세네카는 연민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양이나 교육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러한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할 것이다.²⁵⁾

물론 당사자의 판단이 연민과 무관하지 않는데, 이는 연민을 느끼는 불행한 사건의 목격자가 불행의 당사자 자신이 처한 곤궁에 부과하는 중요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자신의 입술에 난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관악기 연주자에 대해 —비록 그 상처가 우리에게겐 별것 아니라도 해도— 우리는 연민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력 단절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연민의 두 번째 인지적 요소는 “그럴만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즉 우리가

23) 누스바움은 현대 미국인들이 느끼는 동감의 사례를 제시한 클라크(Candace Clark)의 연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민을 비교한다. 같은 책, 308~309.

24) Aristotle, *Rhetoric*, 1386a6-13.

25) 스토아 감정론이 갖는 강한 인지주의적 함축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점들을 들어 누스바움은 수정된 스토아주의(Neo-Stoic) 감정론을 주장한다. Martha C. Nussbaum(2004) 191ff.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고통의 당사자에게 그럴만한 비난의 요소가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연히 입은 상처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버려져 10년 동안 외딴 섬에서 야수처럼 살아야했던 필록테테스에 대한 연민은 그의 무고함에서 비롯한다. 반면 당사자의 과오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 연민을 호소하는 것이란 곧 당사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운에 의해 닥친 재난처럼 당사자의 외부에서 비롯한 곤궁은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불행은 대개 사람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과오와 귀책사유를 두고 논쟁적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인지적 요소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가령 공공 정서와 밀착한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은 연민의 수사학을 동원하는 데 능숙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재난을 홍수나 태풍처럼 그들에게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닥친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뉴딜 시기에는 “충명한 연민의 수사학자”²⁶⁾였다.

한편 당사자가 초래한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연민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부모는 연민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두 단계의 판단 과정을 거치는 듯하다. 즉 비행은 청소년 자신의 행동이다. 하지만 그런 나이에는 판단이 미숙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반면 청소년 비행으로 꼽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 가령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청소년에게는 연민을 느낄 수 있지만 개를 학대하고 죽인 청소년에게는 그렇지 않다.

연민의 세 번째 인지적 요소는 인간적인 연약함(vulnerability)과 연관된다. 즉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의 가능성과 유사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록테테스는 그리스 병사들에게 그들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부단히 상기시킨다. 아리스토텔

26) Martha C. Nussbaum(2001) 314.

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이 갖는 정서적 효과에서 이러한 요소를 부각시켰다. 즉 관객이 비극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²⁷⁾ 이 과정에 관객 역시 유사한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이러한 입장은 루소에게도 찾을 수 있다. 루소는 『에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며, 우리 마음에 인간애를 갖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공유하는 비참함이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인간애에 대한 의무가 없을 것이다. 모든 애착은 부족함의 표시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자체에서 우리의 덧없는 행복이 생겨난다. (...)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²⁸⁾

여기에서 누스바움은 이러한 연민의 요소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을 알아내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문학 작품이 자극하는 공상의 요소와도 연관된다. 즉 문학 작품은 우리와 그들 간의 구획을 야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정에서의 교육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는 루소 역시 지적하고 있다.

“왜 왕들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동정심이 없는가? 그들은 인간 존재의 인간됨을 결코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는 왜 가난한 사람에게 그토록 매정한가?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게 되리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27)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449b25-27.

28) Martha C. Nussbaum(2001) 315. 장 자크 루소, 이용철·문경자 옮김, 『에밀 또는 교육론2』 (한길사, 2007) 4권 36.

않기 때문이다. 왜 귀족은 평민을 그토록 멸시하는가? 그들은 결코 평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요컨대, 계급, 종교, 인종, 성,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회적 장벽들은 유사성을 찾으려는 상상력에 저항하고 이런 저항은 연민의 감정을 방해한다. 나아가 종의 경계는 이런 유사성을 더욱 찾기 어렵게 한다. 인간종과 유사성이면 동물일수록 연민을 느끼기 힘든 이유도 거기에 있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유사성의 판단은 연민을 느낄 강한 심리학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민 감정을 구성하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누스바움은 연민 감정의 인지적 특성과 그 윤리적 정당성을 찾고자하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요소를 필요로 하는 듯하다.³⁰⁾

이에 누스바움은 에우다이모니아적 요소를 거론한다.³¹⁾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 모두 고려하고 있는 유사성의 판단에는 삶의 번영에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망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감정은 지향적 대상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그 대상에서 지각되는 가치는 특수한 종류의 가치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대상은 한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29) Martha C. Nussbaum(2001) 315. 장 자크 루소, 같은 책, 41.

30) 특히 연민 감정의 윤리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누스바움은 애덤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문학적 재판관이 사법적으로 중립적이며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누스바움(2013) 4장 참조. 여기에는 근대 이후 도덕적 판단이 요구하는 보편성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누스바움의 감정론과 도덕교육과의 연관에 관해서는, 박진환·김순자, 「누스바움의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도덕판단교육」, 『윤리교육연구』 제16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08) 299~318.

31) 누스바움이 여기에서 “에우다이모니아적(eudaimonistic)”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표현이 갖는 고대 그리스적 함축을 살리기 위해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은 현대에는 공리주의 영향 하에서 “행복(happiness)”으로 잘못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개념에는 쾌와 고통의 감각만이 아니라 대상이 그 자체로 사랑받거나 아낌을 받는 시민적인 혹은 인격적인 필리아의 상호관계 또한 포함된다. Martha C. Nussbaum(2004) 190.

다. 나는 단지 막연하게 세상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나의 소중한 관계나 전망을 위협하는 임박한 위험에 관한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실이나 곤란함에 대한 판단이다. 연민 감정에서 가치는 (다른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순히 그런 대상이 당사자의 만족의 수단이나 도구이기에 갖는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인 가치이다.

누스바움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든다.³²⁾ 나는 거리에서 어떤 외국인 여성을 본다. 그런데 나는 이 여성이 음주 운전자에게 치인 하나뿐인 그녀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며 이 여성이 그녀 자신의 어떤 잘못도 없이 극도로 심한 상실을 겪었다고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이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잘 안다. 이제 나는 이 지점에서 그 여성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괴로움을 떠올리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저 내가 들은 바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산만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때 내가 결여한 인지적 요소는 바로 에우다이모니아적 판단이다.³³⁾

누스바움의 논의에 따르면 유사성 판단이 연민의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연민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2) Martha C. Nussbaum(2001) 322.

33) “관찰자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고픔, 무기력, 질병, 노예적 생활을 겪어야 하는 세계를 본다. 그녀는 음식, 건강, 시민권, 자유와 같은 기본선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언제 어떻게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Martha C. Nussbaum(2001) 320. 이러한 인지적 요인들은 관찰자로 하여금 시선을 사회 구조로 향하게 한다. 즉 재화, 자유, 기회와 자존감과 같은 기본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그럴 경우 관찰자는 가장 안 좋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 즉 걸인, 끝없는 전쟁의 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삶을 가능한 한 개선시킬 수 있는 원칙을 채택하는 사회를 원할 것이다. 이런 논의 구조는 존 롤즈(John Rawls)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과 연관된다.

따라서 신은 인간적 연약함을 갖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이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함의 공유없이 연민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이 처한 곤궁을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에우다이모니아적 판단으로 이끄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요컨대 누스바움은 감정이 단지 비이성적인 떨림이 아니라 인지적 요소들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연민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연민과 같은 도덕 감정이 적절함이나 정당성의 기준에서도 검토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누스바움의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감정의 본성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이 작동하고 있으며, 현재 이는 감정의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간의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IV. 감정은 비인지적인가?

비인지주의의 입장은 감정이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해도 감정을 과연 인지적인 요소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물음을 제기한다. 현대 비인지주의의 감정론을 개시한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약 빨라지는 심장 박동 혹은 가빠지는 숨, 떨리는 입술 혹은 후들거리는 사지, 소름 돋거나 장기들이 동요하는 느낌이 없다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의 감정이 남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콧구멍이 벌름거리지 않고, 이를 악물지 않고, 격한 행동을 향한 충동이 없이 다만 평상시와 같은 근육상태로, 차분하게 숨쉬는 고요한 얼굴로 분노의 상태를 마음에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가슴이 폭발하지 않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가?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 슬픔의 방식에서처럼, 즉 눈물없이, 심장이 옥죄지 않고서, 가슴을 때리지 않고서 슬픔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때

그런 상황들이 애석하다는 느낌없는 인지만이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은 없다. 거꾸로 모든 정념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온전히 체현되지 않은 인간 감정은 의미가 없다.”³⁴⁾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차이는 바로 감정을 정의하는데 믿음, 판단, 그리고 평가와 같은 인지적 요소를 본질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 특성과 그 지각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를 본질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제임스는 비인지주의이다. 그런데 제임스는 나아가 감정은 신체적인 변화와 그것에 대한 지각에 의해 낱낱이 해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철학적 감정 연구 분야에서 제임스의 이러한 견해는 온전히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인지주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비판인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임스의 감정론이 안고 있는 난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현재 비인지주의 감정 철학을 주도하고 있는 프린츠(Jesse Prinz)는 감정은 신체적 변화와 그에 대한 지각이라는 제임스 감정론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감정의 지향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린츠에 따르면, 제임스는 감정이 갖는 합리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이때 감정이 갖는 합리적 차원이란 바로 감정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감정의 신체적 특성과 지향성은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한 프린츠의 답변이 바로 그가 제안하는 “체현된 평가이론”³⁵⁾이다.

우선 프린츠 역시 “감정들은 옳거나 그를 수 있고, 적절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고, 보증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일 수 있다”³⁶⁾고 생각한다. 그런데 감정의 합리적 성격은 바로 그 지향성에서 비롯한다. 프린츠는 “형식적 대상”, “핵심주제”와 같은 인지주의 개념들을

34) William James, “What is an Emotion?”, *Mind* 9, 194. Peter Goldie, *The Emotion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Oxford, 2002) p.53에서 재인용.

35) Jesse Prinz, “Embodied Emotions”, *Thinking about Feelings*(2004), 44~58.

36) 같은 책, 54.

활용해서 감정의 지향성을 설명한다.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은 두 가지 의미에서 지향적이다.

“첫째, 어떻게 감정이 형식적 대상을 갖는가하는 것과, 둘째, 어떻게 감정이 구체적 대상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 예컨대, 내가 길을 지나가다 뱀(구체적 대상)을 보았을 때, 이것의 형식적 대상인 핵심주제 즉 ‘위험’이란 개념을 떠올리게 되고 이와 같은 형식적 대상에 대한 표상은 몸을 떨고 손에 땀을 흘리게 하는 신체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곧 바로 공포라는 감정을 야기한다.”³⁷⁾

프린츠는 감정의 형식적 대상을 인지주의 심리학자인 라자루스(R.S. Lazarus)의 용어를 빌어 핵심주제로 파악한다. 즉 두려움에 대한 위험, 슬픔에 대한 상실, 분노에 대한 모욕 등으로 말이다. 그런데 인지주의와는 달리 프린츠에게 형식적 대상(핵심주제)은 위 인용문에서와 같은 지각적 속성을 갖는다. 프린츠는 감정을 신체적 변화로 보는 제임스 이론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그러한 신체적 변화를 야기하는 인과 기제를 형식적 대상과 연관시킴으로써 지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때 신체적 변화를 야기하는 속성들을 지각하면서, 가령 청각체계가 갑작스런 소음을 감지하거나 시각체계가 어렵קות한 물체를 감지하면서 위험을 표상한다. 이런 위험의 표상이 신체적 변화를 유발하는 마음 속 파일을 형성한다. 프린츠는 이런 “유발파일(elicitation file)”³⁸⁾이 평가적 판단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신체적 변화와 무관한 판단이 감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프린츠에 따르면, 이런 경우들은 지각이 야기하는 감정에 부차적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누스바움이 정의하는 연민이 어떤 신체 상태로

37) 양선이,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79권 (2007), 121.

38) Jesse Prinz, 앞의 책, 55. 신체적 변화의 표상으로서 감정과 그 지향성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Jesse Prinz, *Gut Reaction :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2004) 53ff.

체현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연민은 특정한 유형의 고통이다. 그렇다면 연민이 동반하는 고통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검토 없이 우리는 연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누스바움은 그녀가 감정으로 정의한 인지적 판단이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답변한다. 즉

“이성은 움직이고, 포용하고, 거부한다. 이성은 빠르거나 느리게, 확신 하거나 주저하면서 움직인다. 나는 이성이 어머니 죽음의 현상을 품고 다음에 그것을 향해 황망히 달려가고 자신을 열어 받아들인다고 상상했다. 그렇다면 그런 역동적인 능력이 슬픔의 무질서한 움직임들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는 그저 환상은 아니다. 즉 나는 팔 다리에 적합한 동적인 특성들을 사고 속으로 붙여넣거나 또는 이성을 혈류의 동적 특성에 의해 우연히 채색된 것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어머니를 향한 운동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나의 사유의 운동이었다. 이것이 그에 관해 언급된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다.”³⁹⁾

여기에서 누스바움은 감정을 앞서서처럼 어떤 현상을 수용하거나 혹은 인정하는 인지적 판단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의 격변(Upheavals)”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녀에 따르면 감정이 동반하는 신체적 변화와 그 지각은 감정에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연민을 특정한 유형의 고통으로 이해한다해도, 그때의 고통을 단지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두근거림이나 경련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⁴⁰⁾ 이때 고통이란 사고 속에서 체현된 지향성을 갖는 것이고, 연민이란 불행해진 희생자를 향한 정신적 고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바로 희생자의 비통함을 끄찍한 것으로 관심있게 보는 방식을 의미한다.

39) Martha C. Nussbaum(2004) 194.

40) Martha C. Nussbaum(2001) 325.

V. 맺음말

누스바움과 프린츠의 감정론은 현재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의 간에 놓인 긴장과 쟁점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철학 전통에서 출발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가 자신들의 본연의 전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완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인지주의나 비인지주의 모두 현재에는 고전적인 혹은 “표준적인” 방식으로 고수되지 않는다.⁴¹⁾ 비인지주의에 관해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임스의 고찰은 프린츠에 의해서 수정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지주의에 관해서, 누스바움은 감정의 인지주의를 대표하는 고전적 텍스트인 스토아의 감정론을 수정한 네오 스토아적(neo-stoic) 입장을 취한다. 무엇보다 감정은 맹목적인 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두 입장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누스바움의 주장대로 연민과 같은 적절한 감정이 지닌 윤리적 차원은 예술 경험과 문학 독서를 통해 촉발될 수 있고 또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인 논의를 포함하는 통합 독서 교육에서 소설 읽기는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강의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텍스트와 관례해서 누스바움은 디킨스의 사실주의 작품들이나 엘리슨과 같은 현대 소설을 제시한다. 그녀가 제시하는

41) “(스토아의 인지주의의 감정론에 대한) 반론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견해는 경험론에서 파생된 철학과 인지심리학에서 그리고 법학과 공공정책과 같은 분야에서는 최근까지 매우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그것을 검토할 이유를 제시한다. 좀 더 중요한 이유는 그 견해가 부적절하지만 감정 경험의 어떤 중요한 측면, 즉 적절한 언급이 필요한 측면을 포착한다는 것이다.” Martha C. Nussbaum(2004) 186~187. “표준적인” 인지주의 그리고 비인지주의에 대한 비판과 수정에 관해서는, John Deigh, “Concept of Emotions in Modern Philosophy and Psychology”, ed. by Peter Goldie,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Emotion*, (Oxford, 2010) 26. 한편 대표적인 인지주의자인 솔로몬은 최근에는 감정의 신체적 특성을 수용한다. Robert C. Solomon, “Emotions, Thoughts, and Feeling: Emotions as Engagements with World”, *Thinking about Feelings*(2004), 85f.

작품들은 연민이 윤리적 정치적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기 지시적인 전거이자 학생들과 함께 읽어볼만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제시하는 작품들이 담지하는 연민의 주체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면서 동시에 독자이기도 하다. 고전의 경우 더욱 그러하지만, 한 작품이 갖는 미학적 윤리적 가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녀가 전거로 삼는 작품들을 강의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친숙함이나 교육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는데 누스바움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민의 감정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을 노골화하는 작품들은 배제될 것이며, 공동추론을 자극하고 고무하는 작품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공지영(2011),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픈하우스.
- 김양선(2009),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모형 연구 - 텍스트 읽기, 말하기, 쓰기 통합 모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3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현주(2011), 「인문교양교육과 독서토론」, 『교양교육연구』 제5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 박진환·김순자(2008), 「누스바움의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도덕판단교육」, 『윤리교육연구』 제16집, 한국윤리교육학회.
- 양선이(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79권, 철학연구회.
- 윤철홍(2014),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에 대한 수용적 검토」, 『법철학연구』 제17권 2호, 한국법철학회.
- 마사 누스바움(2013),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 궁리.
- 아리스토텔레스(2013),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 장 자크 루소(2007), 이용철·문경자 옮김, 『에밀 또는 교육론2』, 한길사.
- 존 M. 에릭슨·제임스 J. 머피·레이먼드 버드 조이쉬너(2013), 서종기 옮김, 『디베이트 가이드』, 길벗.
- Deigh, John(2010), “Concept of Emotions in Modern Philosophy and Psychology”, ed. by Peter Goldie,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ie, Peter(2002), *The Emotions: A Philosophical Explo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 C.(1999), “Invisibility and Recognition: Sophocles’ Philoctetes and Ellison’s Invisible Man”, *Philosophy and Literature* 23,2 University of Michigan.
- _____ (2001), *Upheavals of Thought :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 _____ (2004), “Emotions as Judgement and Importance”, ed. by Robert C. Solomon, *Thinking about Feelings :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esse(2004), “Embodied Emotions”, ed. by Robert C. Solomon, *Thinking about*

Feelings :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Prinz, Jesse(2004), *Gut Reaction :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Solomon, Robert C.(2004), “Emotions, Thoughts, and Feeling: Emotions as Engagements with World”, ed. by Robert C. Solomon, *Thinking about Feelings :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question, that is, whether debaters' sympat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value-debate, and if so, then how it does. It aims at supporting the communication level in which, including compassion, emotion works. So I examine Nussbaum's these of compassion, which proposes literary imagination as a part of public rationality. According to Nussbaum, formal property and emotional contents in novel invoke the imagination about others' life and the reflection of readers' sense of values. Especially, she proposes Wayne Booth's concept of "co-duction" in reading and discussion. For it reveals the eth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 in literature.

According to her, the thought that sincere citizens and good judges exclude emotional elements completely, as they judge right, are backed up with the assertion that emotion is brutal force and not connected with reason. Nussbaum's critique focuses on the cognitive aspect of emotion: emotion has intensional, intelligent element, that is, belief and judgement. Based on that critique,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ropriate aspect of compassion. Nussbaum's cognitivism overlooks the physical aspects of emotion, but makes possible thinking positively about the relation of compassion with public judgement through the subtle analysis of the upheavals of thought, that is,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And it provides ample insights about reading and discussion education.

【Keywords】 Emotion, Compassion, Reading and Discussion, Nussbaum, Cognitivism

논문 투고일: 2015. 7. 23

심사 완료일: 2015. 8. 10

게재 확정일: 2015. 8. 10